

전북불교계, 세계순례대회 '전면 불참' 선언

9월 23일 공문발송, 조직위원 전원사의 표명 향후 세계순례대회도 불교계 동참 어려울 듯

9월 28일부터 10일간 전주, 완주, 김제, 익산 일원에서 열리는 세계순례대회에 불교계가 공식불참을 선언했다.

세계순례대회 불교계 조직위원회(위원장 보름)는 9월 23일 세계순례대회 조직위원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세계순례대회의 불참과 함께 조직위원 전원의 사퇴를 통보했다.

불교계 조직위는 공문에서 지난 7월 25일 전주시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공개된 전주시종교관광활성화계획이 특정종교성지화를 위한 사업

이라 규정하고 8월 12일 이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수차례 답신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 조직위원들의 사퇴와 함께 세계순례대회에 불참한다고 통보했다.

또 "전주의 일을 특정종교에서 찾겠다는 잘못된 발상과 더불어 천년의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전주시를 허울 좋은 종교관광 성지, 특정종교 성지로 성역화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이전만 불자와 다수의 국민이 분노하고 있

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 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세계순례대회의 근부처지인 종교간의 화합과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든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특정종교를 비호하는 잘못된 처사에 대하여 대오각성하고 종교간의 화합과 소통이 어디 있는지 바로알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세계순례대회에서도 불교계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불교계 조직위원장 보름스님은 본지와와의 통화를 통해 "세계순례대회 조직위원회에 불교계 조직위원들의 사퇴와 함께 공식 불참을 통보했다"며 "이는 전라북도와 전주시,



2012년 전라북도와 한국순례문화연구원이 종교 화합의 걸음을 내딛기 위해 개최한 '세계순례대회'. 불교계는 이번 행사에는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세계순례대회 조직위가 불교계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세계순례대회에도 불교계는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조계종 17교구 금산사 본사차원에서 말사에 공문을 보내 이같은 사실을 알려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며 "순례길에 위치한 사람들의 속식 제공도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순례대회 조직위는 언론사 기자들의 팸투어와 방송사 광고를 통해 세계순례대회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나 불교계의 불참으로 반쪽대회로 치러질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해동불교입제종 전주소년원과 업무협약 체결

청소년 교육선도 및 비행예방 활동 펼칠 계획

해동불교입제종(종정 지암)이 보호소년의 교육활동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도움으로 나섰다.

해동불교입제종 지암 스님은 9월 24일 법무부 전주소년원(원장 장인기)과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해동불교입제종은 보호소년의 교육활동과 성공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 사명감을 가지고 청소년의 교육과 선도, 보호 지원을 통한

비행예방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르면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활동 지원 △보호소년 재비행 방지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및 멘토활동 △인성교육분야 지원 등 교육과정 지원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지암 스님의 울산 천마사 향덕 스님, 종정협의회 사무총장 석보 스님, 문화위원장 지훈 스님, 사회복지위원장 지오 스님, 구

례 용방사 혜정 스님, 청암사 충신도회? 나용수, 정음 삼보정사 신도회 총무 해일심, 여수 청암사 신도회 총무 묘화보살과 전주 소년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식을 마친 지암 스님 일행은 새로 멘토링 활동을 펼칠 원생들과 첫 대면을 갖고 준비해간 간식을 함께 나누고 별도로 청소년들의 고민 상담시간도 가졌다.

지암 스님은 "전주 소년원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1:1의 멘토 멘티 활동을 펼치게 될 것이다"며 "보호소년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사회에



해동불교입제종은 법무부 전주소년원과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빠르게 적응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동불교입제종은 광주 소년원, 대전 소년원등 전국의 소년원

을 찾아 적극적인 멘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차후 활동반경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산사 미륵장육 삼존불 복원 및 개금

9월 22일 경내서 불사회향법회 개최

국보 62호 금산사 미륵전 미륵장육삼존불이 7년에 걸친 복원불사와 개금불사를 마치고 다시 세상에 나타났다.

금산사(주지 원행)는 9월 22일 미륵전 앞마당에서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 회주 도영 스님, 16대 교구장 성우 스님을 비롯한 교구 본말사 스님들과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주정기 전북교포사단장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미륵전 소조 미륵협시보살상 복원불사 및 개금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법화림

보살상이 수해로 인해 붕괴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원에 동참한 사부대중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며 "복원불사와 개금불사에 동참한 사부대중들의 간절한 염원과 원력으로 불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스님은 이어 "지혜와 자비를 바탕으로 원만상을 갖춘 미륵삼존불이 중생의 귀의처가 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행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랜 장마로 인해 흠으로 빛은 법화림 보살상의 후면이 무너진 2006년 7월 16일을 잊을 수 없다"며 "7년간에



금산사는 9월 22일 '미륵전 소조 미륵협시보살상 복원불사 및 개금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좌). 복원 및 개금불사를 마친 미륵삼존불(우).



걸친 복원불사에 동참해준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화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08년부터 국비와 지방비 13억원의 예산으로 진행된 복원불사에는 고령도 275kg, 안동삼베와 한산모시 120필, 찹쌀80kg, 생옷 55판,

금박 620속, 금분 470속이 소요됐으며 문화재 전문가를 비롯한 연인원 1200여명이 동원됐다.

지난 6월부터는 100일간의 개금불사가 진행됐으며 수차례의 옷칠 과정과 도금과정을 거쳐 이날 다시 세상에 나투게 됐다.

이날 복원 및 개금불사를 마친 미륵삼존불은 본존의 높이가 11.82m이고 협시보살인 법화림보살, 대묘상보살은 8.79m에 달하는 거대한 소조불로 국보62호 금산사 미륵전에 봉안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엄사에 생태탐방연수원 조성돼

환경성질환자 치유시설 등 계획...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지리산의 아름다운 자연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생태탐방연수원이 지리산 화엄사 지구에 조성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인 지리산 자연생태를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산악형 생태탐방연수원을 조성한다고 9월 22일 밝혔다.

지리산 생태탐방연수원은 설계 공모를 통해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2만 3,000평방미터 부지에 연면적 3,900평방미터 규모로 건설된다. 사업비 120억 원을 들여 9월 중 착공해 내년 11월 준공될 예정이다.

건물형태는 지리산 능선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지형에 순응하는 모양으로 디자인됐으며, 지열 냉·난방, 태양광 발전, 옥상녹화, 빗물이용시설, LED 조명 등 친환경에너지 기술을 적용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은 지리산 생태탐방연수원 건립으로 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생태와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해 다양하고 특화된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잘 보존된 자연 속에서 아토피와 천식 등 환경성질환자들이 치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별도의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생태탐방연수원이 완공되면 반달곰생태학습장과 탐방안내소, 화엄사 등 기존 탐방거점시설과 연계되어 체류형 탐방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리산국립공원 화엄지구는 연간 40만 명이 방문하는 지역으로 반달곰습곡을 직접 볼 수 있는 종복원기술원과 지리산탐방을 도와주는 탐방안내소가 있다. 뿐만 아니라 천년 고찰 화엄사는 우리나라 최대의 목조건물 각황전(국보 67호)과 연기조사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세웠다는 4사자 3층석탑(국보 35호) 등 국보와 보물이 즐비해 지리산의 대표적인 역사문화탐방 장소로 꼽히는 곳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성사 목조삼불좌상 지정문화재 지정

강진 고성사 목조삼불좌상 등 유형문화재 3종이 전남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다.

전남도는 유형문화재는 곡성 서산사 목조 보살좌상, 광양 백운사 목조 여래좌상, 무형문화재는 보성 용기장, 광양 전어잡이 소리 등 모두 6건을 30일간 지정 예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백운사 목조 보살좌상은 1643년 제작된 작품으로 불상에서 한지와 쪽염색을 한 비단에 불상의 조성과정 등을 기록한 2종의 발원문, 묘법연화경 등 복장(腹藏) 유물이 확인됐다.

서산사의 목조 보살좌상은 1706년 제작된 작품으로 조각 기술이 우수해 조선 후기(18세기) 불교조각 양식 이해에 중요한 유물이다.

고성사 목조 삼불좌상은 조선시대 제작해 1751년 개금(改金)한 작품으로 3구가 원형대로 전하고 조각 양식이 뛰어난 불교미술 연구에 중요한 자료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선 후기 다불(多佛) 조각 예술의 대표작인 해남 대흥사 천불상(도 지정 문화재 제52호)을 국가 지정문화재(보물)로 승격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군산대 박물관 불교문화강좌 개최

군산대 박물관(관장 박영철)은 9월 24일~11월 5일까지 6주간에 걸쳐 불교문화강좌를 개최한다.

매주 화요일 오후3시에 개강하는 불교문화강좌는 동국사 종걸 스님의 '일제 강점기 군산의 불교에 대해서'를 시작으로 △10월 1일과 8일 재연스님(선운사 초기불전승가대학장)의 '빠알리 경장과

초기불교의 모습' △10월 15일 오윤희소장(고려대장경 연구소)의 '훈민정음 불전의 세계' △10월 29일 이병희 교수(교원대)의 '한국 중세 불교의 특색' △11월 5일 권순홍교수(군산대)의 '현대철학과 불교의 대화' 강좌가 이어진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만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층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들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부 출가의식 지원
신부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서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얀마문화원 상명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